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들입니다.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동물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삶과 똑같이
사랑과 보호를 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늘이시여,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소서.
궁지에 처한 그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위로 데려가 사랑을 베푸소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올리는 저의 작은 기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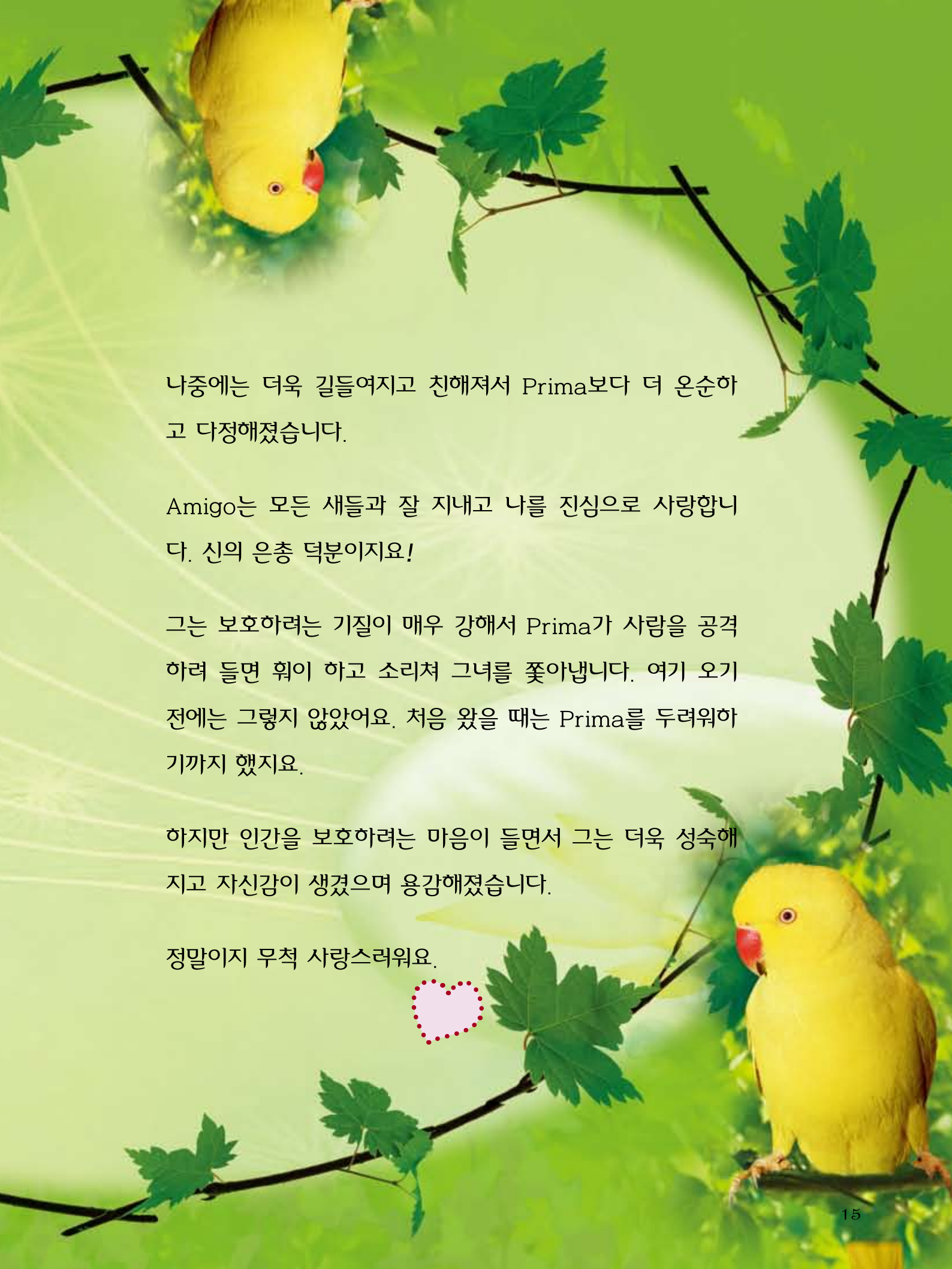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용서하기를.

~ 칭하이 무상사

A yellow parrot with a red beak is perched on a dark branch. The branch is adorned with several pink roses and green leaves. The background is a soft, light green with faint, curved lines.

Amigo

Prima의 짝인 Amigo는 번식만을 위해 야생 상태로 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불안해하고 사람을 피했었지요.....



나중에는 더욱 길들여지고 친해져서 Prima보다 더 온순하고 다정해졌습니다.


Amigo는 모든 새들과 잘 지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의 은총 덕분이지요!

그는 보호하려는 기질이 매우 강해서 Prima가 사람을 공격하려 들면 휘이 하고 소리쳐 그녀를 쫓아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Prima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인간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들면서 그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용감해졌습니다.

정말이지 무척 사랑스러워요.







나는 남자니까
남자로 대해 주세요!
나 역시 신에게서 왔거든요.
다들 그걸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니?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지 않을까?



그 싸움쟁이와 있는 것보단
꽃들 속에 있는 게 훨씬 좋아.
Prima는 아름답긴 한데 너무 드세!





혼자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여자애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골치 아파.
차라리 그분에 대해 명상하러 갈 테야.





애완동물이 있다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을 자신들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겁니다.
태초부터 비밀스럽게 수호받아 온 세계로요!

나는 우리 모두가 새들과 같은 다른 존재들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처럼 대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감정적 관계와 자신이 처한 분위기에 대
단히 민감합니다.

반려와 친구는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 그 자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들의 충성심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반려를 잃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새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모두 새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존귀함과 사
랑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